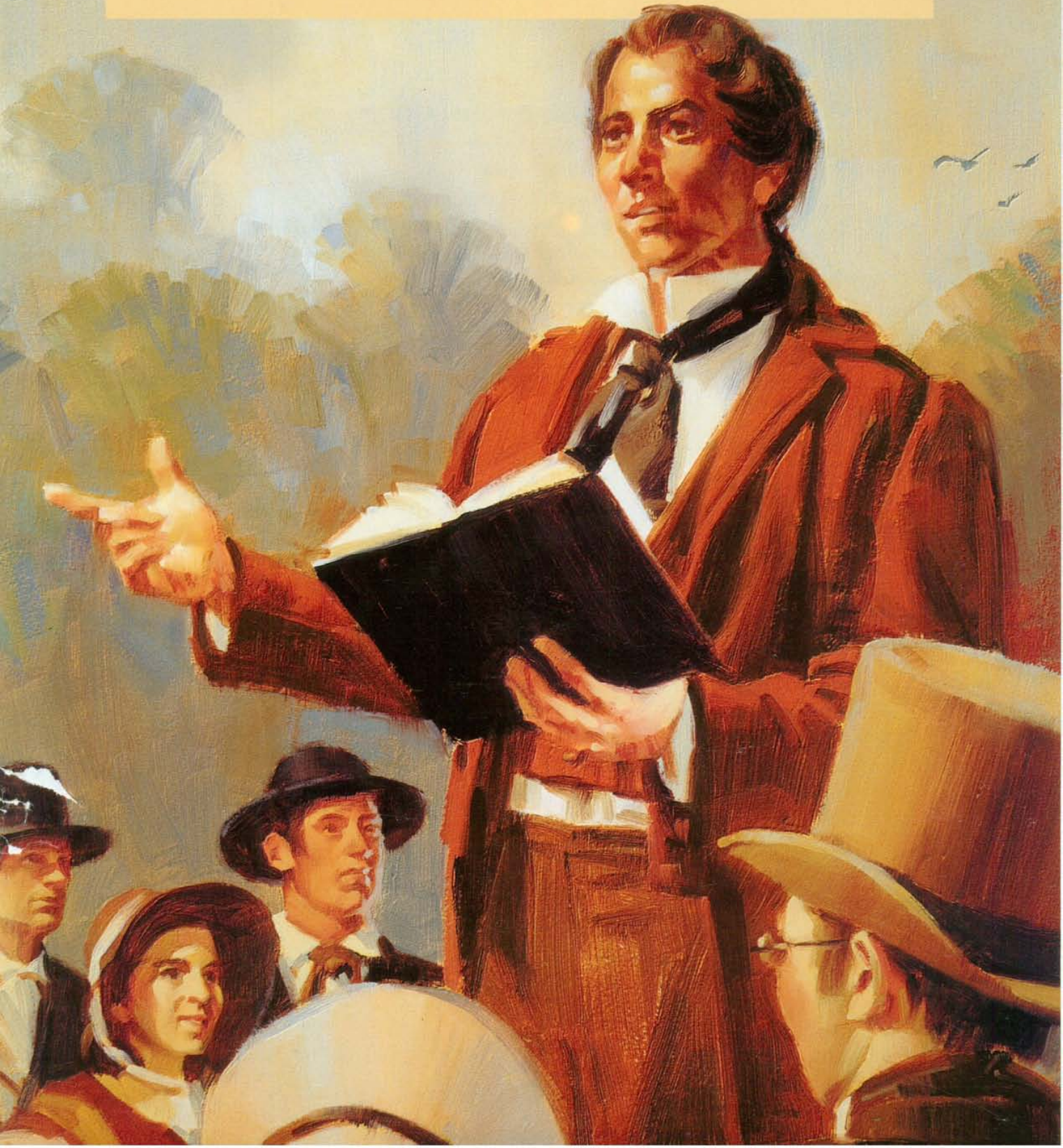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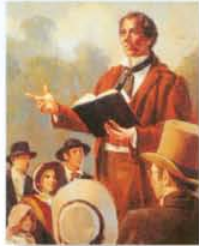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표지

앞: 샘 밀러, 설교 약속을 지키는 요셉 스미스  
뒤: 샘 밀러, 오하이오로 가기 위해 뉴욕을 떠나는 루시 맥 스미스 일행



친구들 표지  
삽화: 브래드 티어



친구들,  
10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8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 10 영을 양육함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강화시킴
- 30 신앙과 헌신의 닳을 내리고 엠 라셀 벨라드 장로
- 42 말일성도의 소리: 대업과 왕국  
생명수에 목말랐습니다 빅투르 마누엘 카버레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후앙 시후아  
나의 눈물이 멈추었어요 엘리야나 마리벨 고르돈 아가레
- 48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 6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 레베카 암스트롱과 엘리샤 르네 메드슨
- 20 "이게 내가 찾고 있던 거야!" 로돌포 바르보자 게레로
- 22 질의 응답: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 26 나의 전쟁에서 이김 트리샤 스완슨 데이튼
- 29 경전 공부에 관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
- 41 포스터: 늘 실수를 한다고요?

### 친구들란

- 2 함께 나누는 시간: 망대 위의 파수꾼 다이앤 에스 니콜스
- 4 친구가 친구에게: 엘 톰 페리
- 6 신약 성서 이야기: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예수님
- 10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앤지 버그스트롬
- 13 심심풀이: 나는 재능이 많아요 제니퍼 클로워드
- 14 이야기: 앤의 용기 비벌리 제이 알스트롬



6쪽 참조



10쪽 참조

**리아호나** 2001년 8월 호, 제8호  
21988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엘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라셀 벨라르, 조셀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일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홈니

**그래픽 책임자:** 엘렌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나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크트 밴 캠펬

**산인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리 에이 코치, 테니즈 커비, 헬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25호, 제 38권, 제 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2001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아,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알라리아,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르비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ugust 2001 No.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영감을 준 마사 젤스코바**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린이란 친구들입니다. 어리지만 그렇게 특별한 어린이들의 간증과 경험들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1999년 10월 호에 실린, 러시아에 사는 한 어린 소녀인 마사 젤스코바에 관한 친구 사귀기 기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선교사 임지에서 저는 어느 곳에서도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과 저의 도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사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저는 그러한 느낌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로렌 오 페레이라 다 실바 장로  
브라질 브라스 리아 선교부

**영감적인 삽화들**

리아호나독일어판에 실린 멋진 그림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저는 걱정이 많아 리아호나를 읽을 힘이나 집중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아호나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삽화들은 언제나 힘과 영감을 줍니다.

헤이즐-로즈 랭크메이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  
성 요한-폰저 지부



**나를 위해 쓰여진 리아호나**

부모님은 언제나 제게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를 읽으라고 권하셨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그 책을 한번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자, 저는 저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매 달 리아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리아호나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글이 특별히 저를 위해 쓰여졌다는 느낌을 순간 순간 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고무적이고 영감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신이 그 말씀들의 진실성을 증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 달 리아호나가 도착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이블린 몬테리오 리 힌  
브라질 캄피나스 카스테요 스테이크  
바로 제랄도 와드

**간증을 강화시킨 예언자의 음성**

저의 생활은 리아호나(통가어판)에서 읽은 훌륭한 가르침과 권고로 크게 축복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혼자 리아호나를 읽고, 그런 후에 배운 것을 가족들과 나눕니다.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저의 간증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밀레 케이 페니  
네바다 리노 북 스테이크  
리오 제4(통가어) 와드



#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각 성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우리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들을 그려보고  
그것을 기억 속에  
간직합니다.

**시**편 24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시편 24:3)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결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거룩한 곳”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예언자적인 영감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곱 개의 성전이 헌납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어느 시대에도 성전 건축이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충실한 성도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은 그 충실함으로 인해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 축복의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영원히 축복 받을 것입니다.

각각의 성전 건물은 모든 면에서 영감적이며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성전 건물 자체

# 성전 의식

## “주님 두루 다스려 주옵소서”

만으로 축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들과 신성한 의식들은—세상에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수반하는 신권 열쇠와 같이—신권 권능과 성약에 순종하고 충실할 때 이루어 집니다.

각 성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우리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들을 그려보고 그것을 기억 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 여러 곳에 성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해 주는 성전 의식을 받을 지성소를 갖지 못한 충실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테이크장, 축복사, 고등 평의원, 감독 그리고 기타 신권 지도자들이며 수많은 충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인봉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책임과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전들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바친 신앙과 수고를 어느 정도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현대 성전의 웅장함과 훌륭함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기서 잠시 나부 성전과 커틀랜드 성전을 지은 가난한 일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서 있는 각 성전은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입증하는 것이며, 그들의 승리를 의미하고, 폭도들의 잔인한 손에 의해 자행된 파괴와 구타, 살인의 고통을 겪고 결국 서부로 내몰린 우리 백성들 모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1838년 10월 30일의 혼즈밀 학살 때 피난처를 찾으려고 대장간의 풀무 밑으로 기어들어 갔다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아홉 살 소년, 사디어스 스미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야만적이며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 집에서 불들려 온 몸에 뜨거운 타르 칠을 당하고 그 위에 깃털이 꽂힌 채로 마을 사방으로 질질 끌려 다녔던 에드워드 패트리지(1793~1840) 감독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순결의 성약을 맺으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목적에 헌납합니다. 새로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희며, 오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하며 죄를 씻어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찾아 하나님의 성소에 올 믿음이 강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과 택하신 자들의 끝없는 무리들을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성한 건물 안에 들어올 때, 모두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로다.”(니파이이서 9:41)

성도들이 신성한 씻음과 기름 부음의 방에 들어가 씻음을 받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해 질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들의 영육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러 오는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젊은 부부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에게 인봉될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뚜렷이 봅니다. 그들의 충실함을 통하여, 영광과 불사 불멸, 영생의 옷을 입고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오는 권세가 따르는 거룩한 부활의 축복이 그들 위에 인봉 될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봅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제단 주위에 서 있는, 서로에게 인봉되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수많은 어린이들과,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베풀기 위해 경외심을 갖고 주님의 집에 오는 청소년들의 유쾌함과 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하는 침례 의식과 엔다우먼트의 축복, 인봉의 축복 등 대리 의식들이 행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원한 진보



거룩한 곳에 서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전 이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 잠시 지연된 하늘의 수많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함께 결합하여 서로 춤추고,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매는 인봉의 권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위대하고 겸손한 예언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신앙이 흔들렸거나 범법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한 후에, 그들에게는 엔다우먼트의 속죄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전 이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목적에만 전념하고 헌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안전과 서로를 강화시키는 사랑과 동정적인 이해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편 24:3~4)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시편 93:5)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매우 커다란 축복이다.
2. 나부 성전과 커틀랜드 성전을 지은 가난한 일꾼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아직도 성전 가까이 살고 있지 못한 회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책임이 있다.
4. 성전의 축복은 순종과 충실함을 통하여 신권의 권능과 신성한 성약을 통해 온다.
5. 성전에서 우리는 순종, 희생, 순결, 거룩한 목적에 우리 삶을 헌납하는 것에 대해 배운다.
6. 성전 이외에,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며 우리 가정은 거룩한 목적에 헌납되어야 한다.

복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짧은 말은 진실로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

**애**리조나 메사 성전의 제단에서 내가 여동생 제니퍼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와 마주 앉았던 날은 2월 14일이었습니다. 나는 열다섯 살이었고 1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목표에 불과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위한 가족으로 인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1년 전,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부모님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직자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그 결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결혼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제과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랑해,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라고 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그 분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등에 통증 문제가 생긴 후에, 한 교회 회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운동을 도와 주었던 한 물리 치료사가 부모님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석했던 첫번째 모임은 스테이크 대회였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가족의 강화였습니다.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끝맺곤 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 되었을 때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레베카 암스트롱

엘리사 르네 메드슨에게 한 이야기



는 방법들을 찾고 있던 어머니께 그 대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의 기도 역시 응답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침례를 권유한 이후에 나는 교회가 참된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한 복음 14장 26절~27절에 있는, 성신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침례의 물가로

1996년 2월 11일에 우리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 와드 모임에 참석한 것은 단 몇 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침례식에 와서 환영의 뜻을 보여주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성전에서 인봉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와 구세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전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족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영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전에 가는 일에 관해 예언자가 쓰신 글들을 모두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 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들을 간구만 하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 감사를 드리는 데 집





중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우리가 인봉 받기로 되어 있던 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성전에 도착하여 부모님께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으시는 동안 제과 나는 성전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꽃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어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제과 내가 하얀 옷을 입고 부모님이 계신 인봉실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밝고 순수

하며 아름답게 보였는지, 감동을 받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제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거울에 비친 끝없이 계속되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증거해 주는 성신을 느꼈습니다.

인봉 의식이 끝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려고 온 사람들의 수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침례 받은 지 꼭 1년 3일 만에 우리 가족이 인봉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이 써 오셨던 "사랑해,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레베카 암스트롱은 애리조나주, 투산 북스테이크 투산 대학 제1와드 회원이다.

왼쪽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오른쪽 삽화: 그레그 뉴블드, 가족이 사진을 제공함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하나님의 대업

“이것은 하나님의 대업이며 왕국입니다. 이것은 이 말일에 회복된 그분의 사업으로서, 수 세기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소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세상에 나온 사업입니다. 이 복음과 같은 것은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업과 같은 대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의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재산을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에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sup>1</sup>

## 겸손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에 교만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만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기주의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응답해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112:10)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저는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응답해 주시리라.’<sup>2</sup>

## 이 교회는 남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는 남자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합당한 남자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우며 훌륭한 축복입니까, 형제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릴 권능을 축복해 주며, 권세와 권능, 교회의 일을 이끄는 은사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력과 강한 인성을 개발하고, 평범한 삶 위로 올라서며, 하나님의 신성한 신권의 권능 가운데 그분의 아들로서 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남자들을 위해 할 일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가르치며,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주님께서 계시하신 소중한 것들을 읽고, 그것들을 그의 지식의 창고에 넣을 기회를 줄 것입니다.”<sup>3</sup>

## 이 교회는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녀의 생활에 품위를 더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목적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시야를 더해 줄

것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상호 부조회 조직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이 조직은 4백만 명의 회원과 자체 회장단, 자체 위원회, 자체 학습 과정을 가지고 훌륭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벌이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여 그녀의 삶에 발전을 더할 것이며,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목적을 줄 것입니다.”<sup>4</sup>

## 이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새로운 빛, 새로운 관점 안에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가정을 지배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독려할 것입니다.”<sup>5</sup>

## 신앙을 지키십시오

“저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부름에서 해임되면 떨어져 나가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 축복을 받을 때나 시련을 받을 때나 항상 고결하게 생활하십시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충실하십시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즉, 그

분의 사업의 진실함을 하늘에서부터 선포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보다 더 위대한 음성은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지상의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의 신분과 실재성, 아버지의 계획에서 구속주요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아들의 위대하고 신성한 위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신성한 진리에 대한 신앙을 지키십시오. ...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나날에 감미로움과 평화와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sup>6</sup>

### 왕국의 미래

“우리가 [교회에서] 과거에 보아 온 것들은 미래에 대한 비범하고 영광스러우며 훌륭한 것을 예시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그 누구도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계속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운명과 목적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sup>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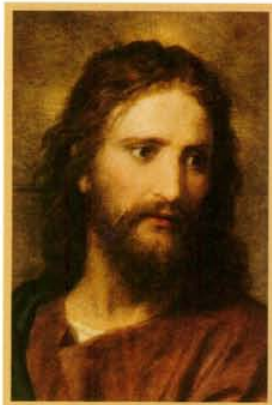
### 주

1. 2000년 1월 22일 하와이 오아후 지구 대회
2. 1999년 8월 22일, 워싱턴 주 스포케인, 청소년과 독신 성인들과의 모임

3. 2000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모임
4. 2000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모임
5. 2000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모임
6. 2000년 1월 23일, 하와이 오아후 지구 대회
7. 1999년 11월 2일, 처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음이 가정을 지배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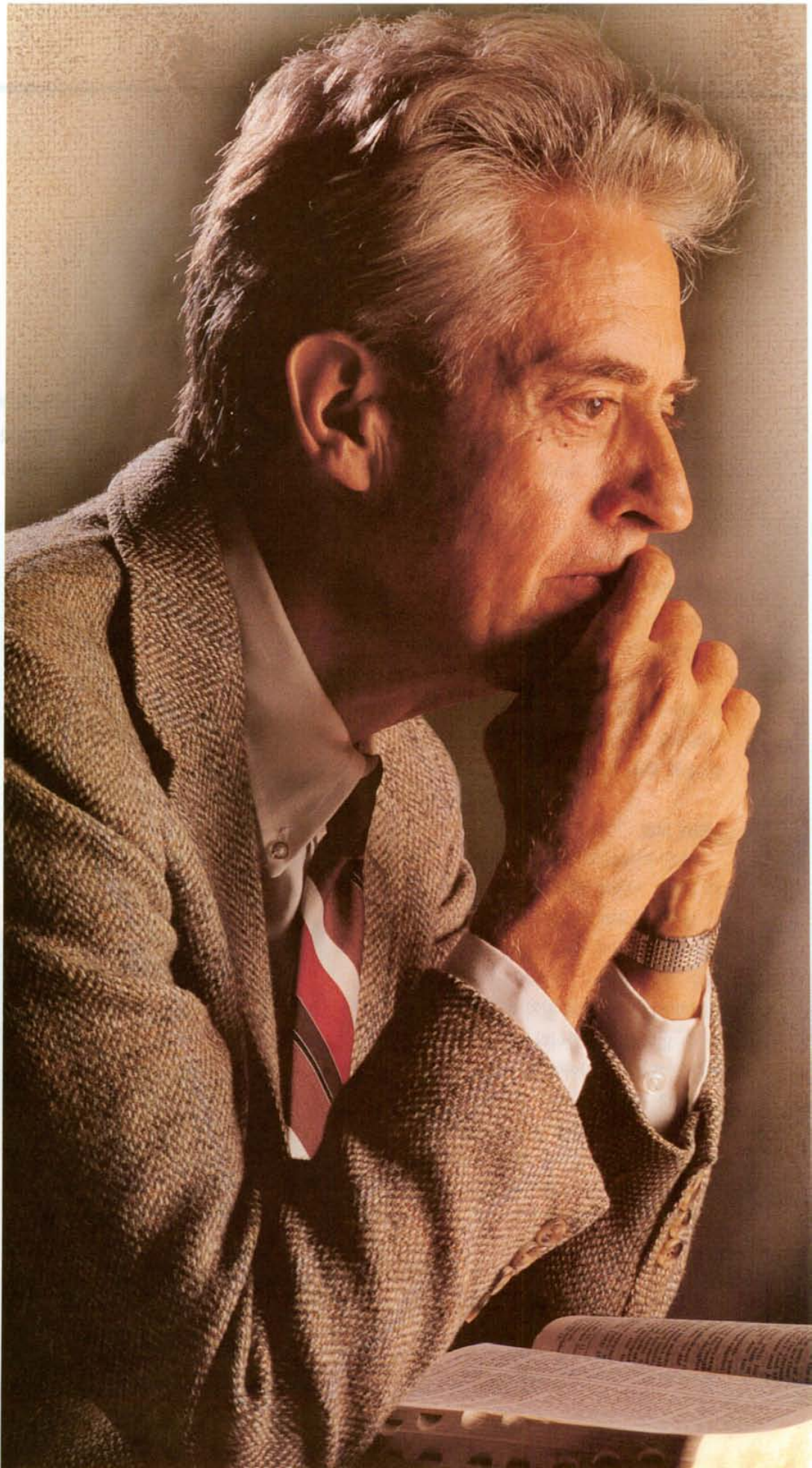




## 구한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신비가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니파이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원목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부자 장난. 오른쪽 사진: 신화: 엘든 시 앤더슨



# 영을 양육함

델린 에이치 옥스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서는 구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드려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양분들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손상되고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양실조는 뇌 기능 저하, 소화 불량, 기력 감퇴, 시력 손상과 같은 증상을 가져옵니다. 좋은 영양분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이는 어린이들의 신체가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결핍될 때 손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 또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을 위한 양식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의 결과는 신체적 영양실조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해롭습니다. 영적 영양실조의 증상은 영적 양식의 소화 기능 약화, 영적인 힘의 감소, 영적 시력 손상 등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영양실조를 겪지 않도록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의 주요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 경전 공부, 영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 부름에 봉사하는 것, 금식, 성찬을 취하는 것, 성전에서처럼 여러 성약을 맺는 것 등이 그것입

니다. 우리는 또한,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독이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양식의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설물, 불경스러운 말, 분노 등과 같이 주님의 영을 몰아내는 일들은 우리가 영적 양식이 되는 일들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금지된 것들과 같은 일부 물질들은 신체와 영 모두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충분한 영적 양식을 취하게 해야 하며, 영적인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영향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다음 세대의 양육

부모가 충분한 영적 영양분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것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신체적 특성은 유전이 되는 반면에, 강한 신앙과 영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몰몬경의 가장 위대한 교사 중의 한 사람인 베냐민 왕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의 순수성을 한 세대에게 가르쳤으며 그들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모사이야서 5:2) 그러나 그 놀라운 신앙과 영성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어 베냐민 왕의 이야기를 알아 듣지 못한 세대가 장성



# 영성

갔고, 백성들은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 신앙과 의로움이 차차 미소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니파이삼서 1:30)

아마도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는 충실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거의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와 비슷한 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았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들과 임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칠십인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총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능과 신체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능은 영의 일부이며 영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에 관한 신성한 진리 또는 더 높은 진리는 근본적인 진리이며 ... 세상의 죄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A Zion University,”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95~96 Speeches* [1996], 126)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회개와 침례, 성신의 은사에 관한 교리 등과 같은 복음의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가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이 계시를 받은 지 2년 후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교리와 성약 93:40)고 명하시고 나서 그 계명을 대관장단 보좌로서 새로 부름 받은 시드니 리그돈 (1793~1876)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1787~1842)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윌리엄스 부대관장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네가 괴

하매, 저들이 그 조상들의 전언을 믿지 아니하여,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강림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저들의 마음은 강박하여졌으며,

“침례를 받으려 하거나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은 저희 뜻대로 동떨어진 무리가 되어 육욕적이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고 저들이 이같이 됨은 주 저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려 하지 않았음이라.”(모사이야서 26:1~4)

이와 유사하게, 약 백 년 후에,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의 강력한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경전은 그들이 떨어져 나



## 기도한다

학습과 이성  
 다가가고 그의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배워야 한다.

로움을 받는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이제 한 계명을 네게 주노니, 만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네 집에 옳지 아니한 일이 많음이니라.” (고리와 성약 93:42~43)

저는 모든 부모들이, 그들이 자녀들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자녀들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님의 방법으로

영적 영양실조를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신앙과 영성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에서 간혹 “하나님의 신비”라고 일컫는 영적 진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전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리하이가 그의 반항적인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의 시현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간곡히 권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시현을 해석해 주는 영광스러운 시현을 간구하여 그것을 막 경험한 어린 니파이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친이 저들에게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음이라. 저들이 마땅히 주께 간구하여야 하였음에도, 마음이 강박함으로 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였음이라.”(니파이일서 15:3) 우리는 가장 훌륭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신비는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니파이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암몬은 이 중요한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

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나니”(엘마서 26:22)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식의 모든 보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그의 존재, 권세, 사랑, 약속 ... 등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지식은 배제하고 세속적인 지식을 쌓는 데만 이 생의 나날을 보낸다면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며 신앙을 쌓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세상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영혼을 구원하거나 해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ited by Edward L. Kimball [1982], 390)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식이며,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주님의 방법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리고 경전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일컫고 있는 영적 양식인 영원한 진리를, 구하고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학습하고 이치를 논하는 일은 이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학습과 이성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학습과 이성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게 사용되더라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의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마련해 주신 필수 불가결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The Lord's Way* [1991], 56)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이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영양분과, 신앙과 간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공부는 대개 학습과 이성으로 시작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적인 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변함없는 신앙과 깊은 영성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경은 이와 같은 많은 예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몇 해 전에, “믿음이 지극한 자들 외에는 모두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저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저들의 지혜

만을 믿어 ...

“백성들은 저희끼리 논쟁하며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니”(힐라맨서 16:15, 17~18)

그리고 나서 경전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상에 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 잡았으니”(힐라맨서 16:23)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주님의 방법은 1831년에 계시되었고 현재 교리와 성약 50편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14절)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18절) 가르치거나 전파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18절)고 경고 하심으로써 이 중요한 진리를 재차 강조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님께서는 만약 “진리의 말씀”(19절)을 “다른 방법으로”(20절)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20절)고 선포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25절) 이 원리를 설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구도자들에게 학습과 이성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영의 증거와 가르침 없이,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1801~1877) 대관장은 지적 바탕에 기반을 둔 개종과 영적 증거에 기초한 개종의 중요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력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에도







## 가르친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침 받았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가르쳐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성적으로  
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  
여 복음의 제1원리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령의 권세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는 종종 있습니  
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80쪽)

영적인 것에 지적으로 접근해서 영적으  
로 양육되지 못하고 의심과 의혹에 쉽게 빠  
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관장단 제  
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직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도 고  
귀한 느낌에 따름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Reach Up for  
the Light [1990], 29) (2000년 11월호 리야호나 “대관장  
단 메시지: 풍성한 삶을 얻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6쪽) 파  
우스트 부대관장이 “느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  
십시오. 지적 확신을 추구하거나 그에 만족하여 멈추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진 영적인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들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라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집은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집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개종과 간증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들은 “영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활에 관한 회의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언자 엘  
마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이 위대한 통찰력을 보여 주었습  
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에서 모두 그 신비로움을 얻  
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저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

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는 하  
나님의 말씀을 조금 밖에 알아 들을 수 없으  
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  
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밖에 듣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  
의 신비로운 섭리를 조금도 알지 못하며 드  
디어는 악마의 힘에 사로 잡혀 악마의 뜻대  
로 멸망으로 이끌려 가나니, 지옥의 사슬이  
라 함은 바로 이것을 뜻하느니라.”(앨마서  
12:9~11)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신으로부터  
받는 계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가 계시에 대하여 마음  
을 강박하게 먹고 학습과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이해력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엘마가 말한 대로 “말씀을 조금  
밖에 듣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의 모범의 힘

우리가 신앙과 영적인 영양분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할  
때, 부모의 모범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기도와 부모의 가르침과 간증은  
종교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송신기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  
니다.

백 년 전에,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  
(1827~1901)은 부모들에게 이 원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  
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원리를 가  
르치고 그것을 합당한 모범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나  
중에 자녀들이 자라서, 그들은 그들 부모의 모범과 훈계에 관  
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부모가 한 말과



행동은 그 무게를 더해 가게 될 것입니다.”(Gospel Truth, selected by Jerreld L. Newquist [1987], 383) 저의 부모님의 모범을 생각할 때 저는 그 방법의 힘과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합당한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북미의 교회 회원에 대한 통계 자료는 부모의 모범이 청소년의 행동과 신앙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효과는 단연 교회 활동이 미치는 효과보다도 뛰어납니다. 사춘기 시절에 경험하는 가족의 종교적 관습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가치와 행동에 대한 중요한 전조입니다.

이른바 교회에서 “탈퇴한” 사람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속에서나 실제 생활에서 신앙심 깊게 생활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보다, 평생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는 비율이 네 배가 높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가족의 종교적





## 성찬을 취한다

성찬의 상징물인  
빵과 물을 취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관습을 무시하거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권하지 않을 행동을 할 때, 부모들이 맡게 될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지적인 방법과 경험은 신앙과 영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과 적극적이며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은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영성을 전달하는 일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모님의 모범은 저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결코 비판하지 않은 것, 매우 어려울 때에도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내내, 영적인 영양분을 주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부모의 모범 세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비 엠 새비지는 애리조나 동부에 정착하라는 명을 받은 말일성도 개척자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지정 받은 지역에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대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끝내자, 그는 약간의 휴식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임무로부터 해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 솔트레이크에 있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을 만나서 70세인 새비지 형제가 여전히 "일터까지 왕복 9.5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우드럽 댐에서 매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새비지 형제의 임무가 끝났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그가 지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권 지도자들이 그가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은 새비지 형제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의 자유"라는 전갈을 보

냈습니다.

그 전갈을 받은 후에도, 새비지 형제는 새 댐이 완공되어 "계곡에 다시 물을 댈 수 있을" 때까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레비 새비지는 47년 전, 1871년에 신권의 권능으로 그에게 부여된 의무에서 해임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Nels Anderson, *Desert Saints* [1942], 359쪽에서 인용) 그의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봉사의 모범입니까!

제가 말씀 드릴 두 번째 모범도 개척자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종이 제조를 위해 많은 양의 낡은 천이 필요했을 때, 대관장단은 감독들에게 그들의 와드와 지역에서 낡은 천 모으기 운동을 벌이라고 요청했습니다. 1861년에 브리검 영 대관장은 "낡은 천 모으기"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던 조지 가다드를 불렀습니다.

가다드 형제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부름은] 저의 개인적인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 수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상인과 경매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내가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에는 빈 자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집 안에 있는 누더기를 달라고 부탁하러 다니다니. 이 얼마나 큰 상황의 반전입니까 ... 영 대관장님께서 처음 이 제안을 하실 때, 굴욕적인 느낌이 나를 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국인 영국을 떠나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의 시간과 재산은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 대관장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Leonard J. Arrington, *Great Basin Kingdom* [1958], 115쪽에서 인용)

삼 년 이상, 조지 가다드는 아이다호 프랭클린에서 북쪽으로 산테페 카운티까지, 남쪽으로는 유타까지 수 백 집을 방문



## 봉사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리고 경전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으로  
일컫고 있는 영적 양식을  
영원한 진리를,  
구하고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드려내신다.

하며 여행했습니다. 일요일에 그가 했던 설교는 “누더기 설교”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삼 년 동안의 임무가 끝날 무렵, 그는 종이 공장을 위해 45,000 킬로그램의 낡은 천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미천한 일이었지만, 그가 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것이었으며, 신권의 권능으로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모범은 보다 현대적인 것입니다. *Tongan Saints: Legacy of Faith* (통가의 성도들: 신앙의 유산)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총장인 에릭 비 섬웨이는 통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지독히 가난하게 사는 한 충실한 통가 가족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섬웨이 형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키니키니 가족은 오리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통가타푸에 식물도 가축도 전혀 없었다. 결국 그 오리들도 줄고 줄어 작은 새끼 오리 한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마루 바닥에 둥그렇게 모여 앉은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어린 네 자녀들이 그들의 엄마가 삶은 과일 조각을 우리 앞에 각각 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내 앞에 방금 삶은 새끼 오리를 내놓았다. 무릎에 손을 모으고 얌전히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별식의 모양과 냄새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 새끼 오리는 나를 위한 것이 분명했다.

“저 혼자서 이것을 먹지는 않겠어요.’ 나는 테비타 물리 [형제]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같이 먹어요.’

“내가 그것을 나누려 하자, 테비타 물리는 재빨리 끼어 들었다. ‘아닙니다. 혼자서 드셔야 해요. 그것은 장로님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내가 항의했다.

“‘그들은 그것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

을 이었다. ‘그것을 혼자 드시는 것이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키(고기) 없이 지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1991], 10쪽)

이와 같은 부모의 모범은 영적 영양분을 제공해 주며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 줍니다. 이것이 간증을 키워주고 신앙과 영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 영적 성장의 촉진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신체적 영양분과 영적 영양분의 차이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예수님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예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포 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6) 물몬경의 영감 받은 기록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영적인 방법을 보여 줍니다. “...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

물몬경에서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성찬의 상징물인 빵과 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몸을 기억하여 먹는 것이요, 잔을 받아 마신 자는 나의 피를 기억하여 마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흡족하리라 하시니라.” (니파이삼서 20:8)

요한은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생명

# 영적 진리



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우리가 영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즉 그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을 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세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1915~1985)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필멸의 인간에 알려진 어떠한 과학적 연구, 지적 탐구, 조사 방법도 하나님이 한 개체이시며, 모든 인간이 불사 불멸 속에서 자랄 것이며, 회개한 영혼이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 영적 진리는 오로지 영적인 방법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175)

학습과 이성이라는 지적 방법은 영생을 향한 우리의 발전에 중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길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말하는 이른바 개심이라는 것, 즉 우리에게 영생을 향하여 굳게 나아갈 힘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는 오직 성신의 증거와 권세를 통해서만 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을 기르라고 권고하시면서 이와 똑 같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지적인 교만을 만족시키고 모든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와 지식을 찾고 있

습니다. 단순하고 어지럽힘 없는 신앙을 쌓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보를 더 튼튼하고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Reach Up for the Light*, 15) (“어지럽힘이 없는 신앙”,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88년 9월호 성도의 빛, 26~27쪽)

복음 진리와 간증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영감 받은 말씀과 권고를 듣는 것을 통해서, 신앙 깊은 사람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경건한 개인 학습과 조용한 명상을 통해서 성신으로부터 받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들에 의해 우리의 영혼은 양육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는 니파이삼서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

1996년 2월 13일에 리스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발췌

# “이게 내가 찾고 있던 거야!”



로돌포 바르보자 게레로



페루, 리마에서 보낸 어린 소년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일곱 살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 속에만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로 인해, 나는 내가 과연 올바른 곳에 속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신약의 대부분을 훑어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회원이었던 이웃을 찾아 가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쓰이던 몇 가지 교리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했습

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 다른 종교 집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한 몇 가지 글도 읽어보았지만 그 중 어떤 글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신약을 읽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언급하신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겼지만 어떤

# 말일성도

특정한 종교에도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기술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종교는 자주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젊은 말일성도와 다른 교회의 회원이 벌이는 토론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 말일성도의 목소리와 그의 말에 담긴 힘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론에 대해 내가 들은 내용이라고는 그들이 카우보이 집단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잘 아는 물론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여인이 파란 색 표지의 책을 펼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글은 성경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나는 읽고 있던 만화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파란 색 표지의 책으로 눈을 돌려 그 페이지의 맨 위에 써 있는 엘마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기억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읽고 있던 만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 책은 계속 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이상한 책을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책이 혹시 성경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나에게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이상한 책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그 책은 물론 교회의 것이라고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책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게르시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그 책을 한 권 얻어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게르시는 표지도 없고 종이가 다 낡은 책을 한 권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그날 오후 책을 펼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싶어했던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에 대해 읽는 동안 더 강해졌습니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게 내가 찾던 거야, 여기 진리가 있다구.” 나는 니파이일서의 첫장을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보다도 그 책을 잘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의 집회소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르시는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게르시는 내게 그가 갖고 있던 소책자를 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책자에 있던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건축이 끝났을 때 여동생 헤이디와 함께 그 건물에 가 보았습니다. 두 선교사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론명에 얽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나는 선교사들에게 내가 궁금해 하던 다른 무리의 양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한 이야기, 특히 니파이삼서 15장 16~21절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찾고 있던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 토론을 마친 후, 여동생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는 오랫동안 찾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년 후에 페루, 리마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받은 것이 “혈육”에 의해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마태복음 16:17)에 의한 것이라는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수 년이 지난 오늘, 나는 세상에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아내와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교회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드려도 그분이 저에게 베푸신 자비에 다 보답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

로돌포 바르보자 게테로는 페루 리마 중앙 스테이크 후아스카르 지부의 회원이다.



##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제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준비가 되어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축복을 받을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의 대답

많은 교회 회원들이 언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게 여깁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연령이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데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무렵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혹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게 될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은 감독님과 지부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판단과 영감을 통해 언제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발급할지 아십니다.

축복사의 부름은 계시를 받는 부름입니다. 축복사는 성신의 영감을 받아 축복을 줍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가문에서 여러분의 혈통을 알려주고 축복, 약속, 충고, 훈계, 경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된 축복의 성취 여부는 여러분의 충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나 개종자들에게, 축복을 받는 시기나 연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준비는 매일의 의로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봉사하며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본적인 복음 교리들을 배우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감독님이나 지부장님께 접견을 요청하십시오. 감독이나 지부장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추천서를 발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여러분은 축복사와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축복사가 없다면 스테이크장이나 선교부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축복사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러 갈 때는 안식일 복장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은 개인적으로 받게 되나 직계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서 함께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인쇄된 축복문의 사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문을 연구할 때 영은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성스러우면서 개인적인 이 기록은 기필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문을 다시 읽어 보으로써 여러분은 어려운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놀라운 잠재력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영을 통해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



의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격려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들 중 하나로 여깁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하고 성스러우며, 개인적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영감에 찬 생각", 1997년 리아호나 8월호, 5쪽)

#### 독자들의 대답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물의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지키는 일 등등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발렌티나 퓨로 포토츠키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방부  
도네츠크 첼트랄니 지부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지침입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사의 축복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루이사 페르난다 게라 헤르난데스  
파테말라 파테말라시  
파테말라 엘 몰리노 스테이크 마르티 와드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실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들에 관하여 저의 축복문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감독님, 스테이크장님,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는 주님께 충실히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반 호에 타우모에안가  
통가 나쿠알로파 동 스테이크  
나부토가 제1와드

저는 열 여섯 살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공과를 배우면서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심은 점차 커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스테이크 축복사님께서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경전을 연구할 때 성신은 언제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제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마이케 반 안델  
네덜란드 아펠둔 스테이크  
즈웰레 지부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배울 때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서 배운 대로 모두 행하려고 노력했고, 감독님께 제가 이 축복을 받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구했습니다.

발레리아 크리스티나 리베리오 쿠스튜디오



발렌티나 퓨로 포토츠키야



루이사 페르난다 게라 헤르난데스



이반 호에 타우모에안가



마이케 반 안델



발레리아 크리스티나 리베리오 쿠스튜디오



캐롤린 로페즈 레보우카스



윌리엄 엔리케 가르시아 토레스 장로



미셸 엠 리타우아



에스텔라 줄레타 사베즈 자매

브라질 빌라 벨하 스테이크  
이타포아 와드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좋은 생각과 느낌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기에 더 합당하게 해 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준비된 때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 주실 겁니다.

캐롤린 로페즈 레보우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안다라이 스테이크  
티후카 와드

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저의 축복문은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에게 길을 안내했던 리아호나와도 같습니다.

낙담하게 될 때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윌리엄 엔리케 가르시아 토레스 장로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 중앙 선교부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떠한 부름을 받든 그것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면 이제 감독님이나 지부장님을 찾아 뵙고 추천서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바로 합당

성입니다.  
미셸 엠 리타우아  
필리핀 투제가라오 스테이크  
투제가라오 제4와드

우리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대로 생활함으로써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은 우리의 마음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텔라 줄레타 사베즈 자매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교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1년 10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QUESTIONS AND ANSWERS 10/01,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편지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제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친구들의 반응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정의 밤을 통한 우리 가족의 강화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가정의 밤이 시작되었던 때 저는 다섯 살이었는데, 그 때 일을 기억합니다. 저의 부친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하셨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밤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곧잘 소리 내어 킬킬거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정과 손자녀들의 가정과 증손자들의 가정에서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 유대’의 원리가 참됨을 알려줍니다.”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1999년 4월호 리아호나 18쪽)

## 효과적인 가정의 밤

가정의 밤은 가족들간에 사랑과 단합을 증진시키며, 영을 초대하고, 가족 구성원이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유혹에 맞서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는 월요일 밤이 가정의 밤을 갖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날 밤은 교회 모임과 활동이 없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복음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가정의 밤은 가족 기도, 복음

가르침, 찬송 또는 초등학교 노래, 가족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과 자료는 경전, 복음 원리(물품번호 31110), 가정의 밤 자료집(물품번호 31106), 교회 잡지(이번 호 리아호나 48쪽 참조) 등을 포함한 수많은 교회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의 밤은 가족 평의회, 경전 읽기, 오락 활동, 봉사를 계획하여 수행하기, 가족 재능 발표회, 또는 특별한 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정의 밤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멀린 알 리버트 장로는 칠십인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했다. “다섯 살 난 자녀를 둔 부모가, 니파이가 사악한 레이밴을 대적한 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저의 손자인 이 어린 소년이 그날 저녁 침대 곁에 꿇어 앉아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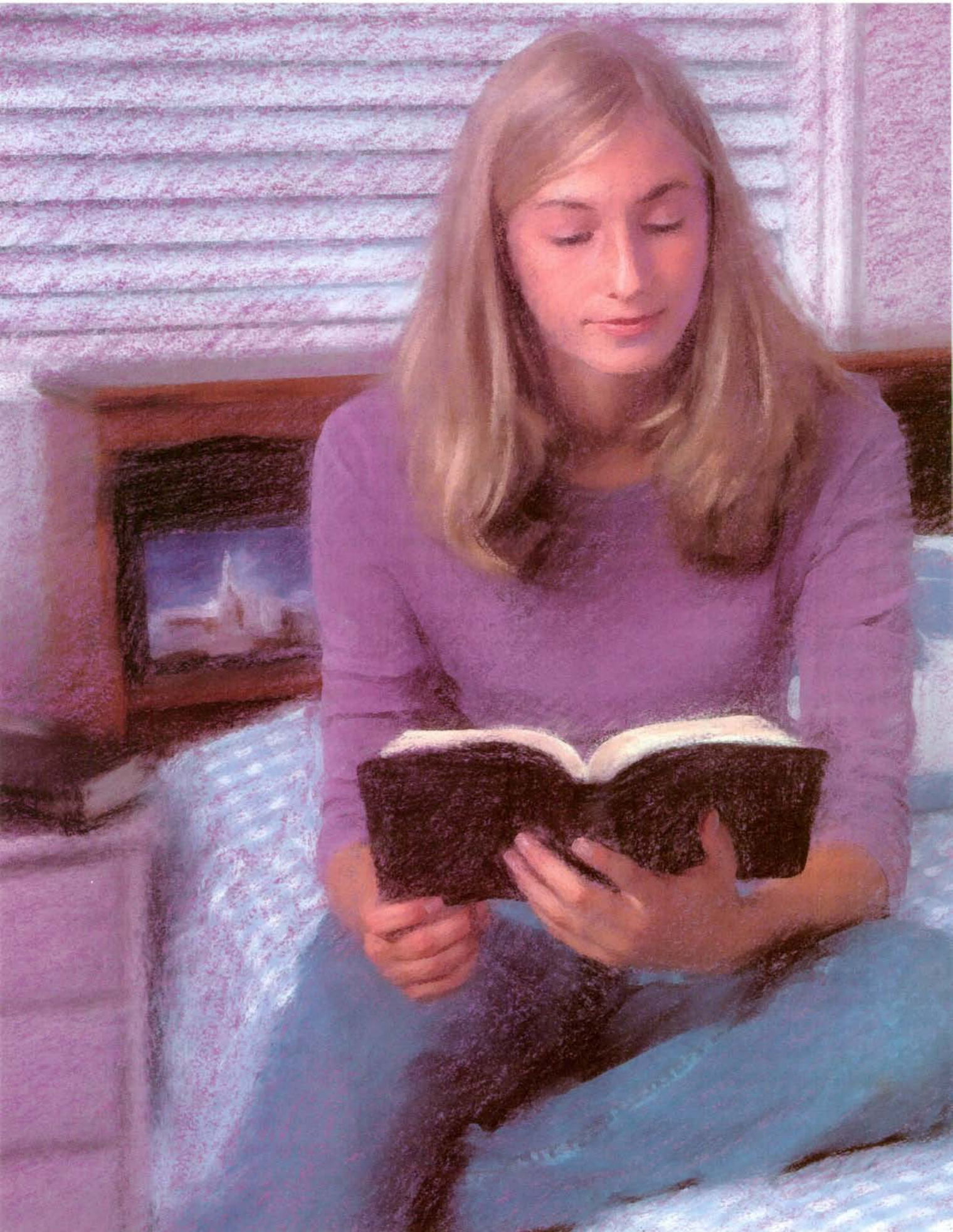
아이가 그 공과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공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니파이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에도요.’”(“자녀들의 특별한 신분”, 멀린 알 리버트, 1994년 7월호 성도의 벗, 30쪽)

## 모두를 위한 축복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가정의 밤에 참여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은 이렇게 선포했다. “가정의 밤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며, 편부모만 있는 가족을 위한 것이며, 가정에 자녀들이 없는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독신 성인들로 이루어진 가정의 밤 그룹을 위한 것이며 혼자 살거나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가정의 밤 [1976], 3쪽)

지금까지 거의 90년 동안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권고해 왔다. 오늘날의 예언자들도 우리에게 주레 가정의 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강화시킬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권고를 따를 때, 그 권고가 얼마나 영감 받은 것인지 알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





# 나의 전쟁에서 이김

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전쟁에서 나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갑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나의 인생은 빼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집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되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언니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부는 감독단에 있었습니다. 형부는 나에게 하루에 30분씩 물몬경을 읽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런 저런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부는 내가 만약 하루에 30분씩 한 달 동안 충실하게 물몬경을 읽는다면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날 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30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굉장한 일도,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30분이나 빼앗기고 있었지만 읽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곧 나는 사

소한 일들이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축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 해 여름 동안 아일랜드에 가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일랜드로 떠날 때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한 지 두 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일랜드에 가서도 물몬경을 시험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물몬경을 읽었습니다.

나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독히도 싫어했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작은 지부에 나가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나의 간증은 부쩍부쩍 커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훌륭한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30분에 교회로 갔다. 오늘은 지부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내 생애에 참석해 본 모임 중에서 가장 영적인 모임이었다! 그렇게 강한 영은 전에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이 곳 깎쟁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매우 관대하며 의롭다. 그들은 내게 힘을 준다. 그들은 너무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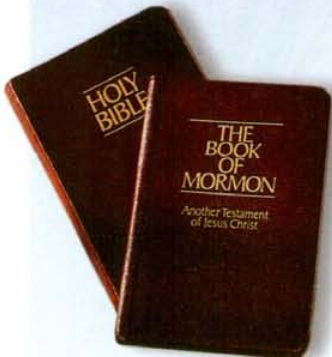
제대로 되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형부는 나에게 하루에 30분씩 물몬경을 읽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곧, 사소한 일들이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샤 스완슨 데이튼

## 기쁘게 지키며

**십**이사도 정원희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니파이이서 31:20) 마음껏 먹는 것은 맛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경전을 기쁜 마음으로 탐구하고 충실한 순종의 정신으로 연구할 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그 말씀들이 ‘육의 마음판에’(고린도후서 3:3) 새겨져 성품의 일부가 됩니다.”(“경전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언니는, 지금 나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확고하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들의 모범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운다. 복음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고 느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문경을 읽는 것은 더 이상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고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시간은 눈깜박할 사이에 지나갔으며 나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의 생활과 나의 옛 친구들을 다시 접하는 것이 내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나는 사실 많은 일들에 대해 견해가 일치했고 나는 엄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생활의 주름들이 하나 둘 퍼지면서 나의 친구들과 과의 상황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부 옛 친구들과 만나는 일을 자제하고 다른 소녀들과 사귀었습니다. 이 일은 내게 무척 힘들었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경전과 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일이 언제 잘 안되어 가는지 늘 알고 있

었고 그때마다 내게 격려의 글을 써 주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인생에 가져온 변화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나침반을 하나 주었던 것입니다.

몇 달 뒤에는 시간을 내기가 더 힘들어졌고 경전 공부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의 나침반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주었습니다. 트리샤, 난 네가 영혼을 위한 중대한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생각해. 나는 매일 그 전선에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또 너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어제 밤 나는 깨달았다. 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뿐이라는 걸 말이야. 물문경을 읽으므로써 매일 너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너 뿐이란다.

나는 경전 읽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서 다시 한번 경전에 의지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영혼에 매일 전투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복하고 싶어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서 싸울 도구가 있습니다. 매일 물문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도와 준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경전의 권세와, 경전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여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아내길 바랍니다. □

트리샤 스완슨 테이튼은 브리검 영 대학교 제18스테이크, BYU 제200와드 회원이다.

# 경전 공부에 관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



**요셉 스미스(1805~1844)**

**교회 제1대 대관장**

“저는 형제님들에게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브리감 영(1801~1877)**

**교회 제2대 대관장**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히 전파하여야 하는 참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대로 생활하고 가르침대로 행할 경우, 여러분을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천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꿈과 시현과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20쪽)



**조셉 에프 스미스 (1839~1918)**

**교회 제6대 대관장**

저는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는 세상의 몇몇 인기 작가들이 쓴 것들을 훨씬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유

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계시해주신 신권의 의식들과 통치의 원리들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서, 물문경, 교리와 성약보다는 소설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46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교회 제12대 대관장**

“저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분이 제 기도를 듣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 다시금 몰두하여 경전을 상고하면 주님과과의 간격은 다시 좁혀지고 영성이 회복됩니다.”(*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5쪽)



**고든 비 힝클리(1910~)**

**교회 제15대 대관장**

[물문경]은 구모라 언덕에서 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아와, 주님의 신성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에 퍼져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영감 곧, 보기에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입니다.(예언자의 영감에 찬 말씀, *리아호나* 8월호, 5쪽)

우리 조상들의 신앙과 순종과 감사와 희생은 모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 신앙과 헌신의 뎡을 내리고

엠 러셀 발라드 장르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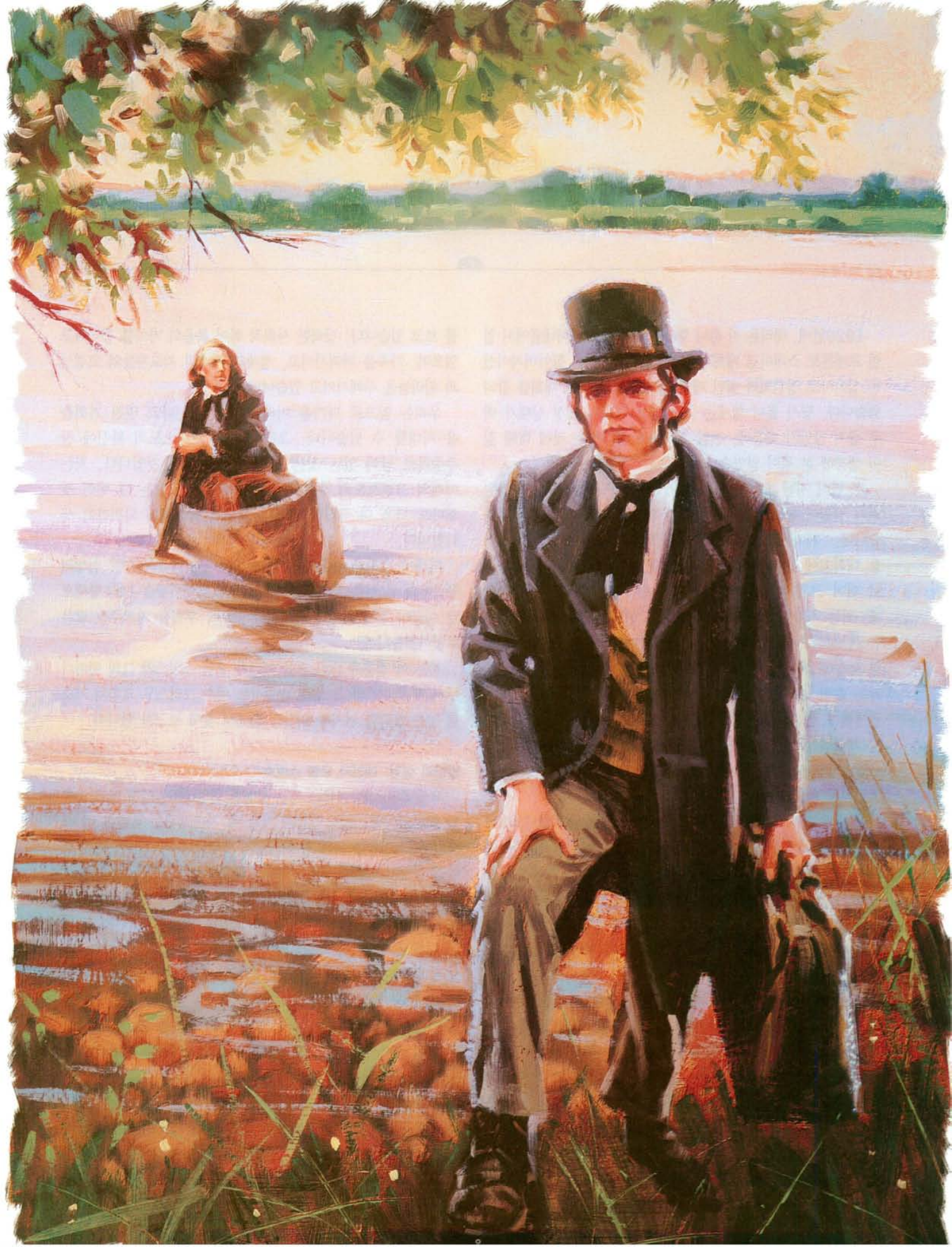


1844년 4월, 나부에 모인 수천 명의 스미스는 하나님의 특성과 계획에 대한

사람들에게 한 설교에서, 예언자 요셉 올바른 이해를 갖고 시작하는 것의 중

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한다면, 올바르게 가기는 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잘못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6:303)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1920년에, 매리온 지 롬니 형제는 렉스버그 태버네클에서 열린 프레몬트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이셨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그 대회를 감리했습니다. 당시 롬니 형제는 23세였고 가족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 년이 지난 1963년 10월 15일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롬니 장로는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가을에 아이다호 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야구와 미식 축구 선수로 뛰어 코치가 되는 것이 제가 뜻한 바였습니다. 8월 말경에, 저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고, 연단의 정북쪽에 있었던 합창단석의 동쪽 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의] 옆 모습에 제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히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영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저는 코치 직업을 갖겠다는 계획을 버렸습니다. 11월에 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1963년 10월 15일 리스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행한 연설)

롬니 장로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도중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들러 저의 할아버지에게서 선교사로 성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롬니 장로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부스러기 하나를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빵 한 덩어리로 갚으십니다.”(에프 버튼 하워드, *매리온 지 롬니의 생애와 신앙*, 66쪽에서 인용) 매리온 지 롬니 장로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과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일부 국가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특정 직업 내에서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상했던 과거와는 달리, 직업의 변경과 퇴진이 이제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법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가속화되는 과학 기술 진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의 확산과 범죄와 폭력단의 엄청난 증가, 국가 전체를 붕괴시키는 민족간의 반목과 증오

를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힘이 복음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으며, 가족을 파괴시키고,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의 고결성과 원리들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확실히 신나고 멋진 기회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찬 추종자로 남아 있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더 극심한 역경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우의 한 가운데서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와 그 밖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용감한 남자와 여자의 삶에서 찾아 보고자 합니다.

#### 방향의 설정: 예언자 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이름은 모든 충실한 말일성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저와 제 가족에게는 특별히 더 소중한데 그 이유는 그의 형 하이람이 우리 가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버몬트의 구릉지에 있는 누추한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805년의 그 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가 태어난 지 195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6월 27일에, 우리는 요셉과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한 그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장차 있을 우리 자신의 시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견딘 요셉 스미스의 인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1834년 시온 캠프 행군을 준비하기 위해 만난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험을 사랑합니다. “일요일 밤 예언자는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작은 통나무 학교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5평이 조금



넘는 작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그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올리버 카우드리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브리검 영이나 히버 시 김볼, 두 프랫 형제와 올슨 하이드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제외하고는 교회에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예언자는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사업에 관해 간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끝내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아주 많이 감화되고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께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머니 무릎에 누인 아기보다도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남미와 북미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대회 보고, 1898년 4월, 57쪽)

신앙 개조는 요셉 스미스가 시카고 신문사의 편집장인 존 웬트워스 씨에게 쓴 편지에 처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842년 3월 1일에 쓰여진 그 편지에서,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어떤 손도 이 사업이 발전해 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폭도들이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이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을 침투하고 모든 나라를 휩쓸어 모든 국가에 퍼지

며, 모든 귀가 들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한 여호와께서 다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담대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40)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후 17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70년 이상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박해는 심하였고, 폭도들이 연합했으며, 군대가 동원되었고, 비방이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여섯 명의 회원으로 처음 10년을 시작하였고, “부정한 손”들이 복음의 전파를 저지하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폭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하이람의 몇몇 주민들은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1832년 3월 24일 밤에 20명이 넘는 폭도들이 모습을 알아차릴 수 없게 얼굴에 칠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요셉을 그의 침대에서 끌어내었다. 반항하지 못할 때까지 그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겨 몸에 그들의 손톱 자국을 내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은 후, 그의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았다. 입 속에 강제로 넣으려던 질산 한 병이 얼굴로 튀겼고, 그의 앞니가 부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폭도들은 리그돈을 그의 집에서 끌고 나와 그의 머리를 쫑쫑 얼은 땅바닥에 박아댔고, 이로 인해 그는 몇일 동안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 예언자의 친구들은 그가 일요일 아침에 하기로 되어 있던 설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밤을 새워 그의 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확실히 신나고 멋진 기회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찬 추종자로 남아 있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더 극심한  
역경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 타르를 벗겨 냈다. 그는 폭도의 주동자인 시몬즈 라이더가 속해 있는 회중에게 연설했다.”(James B. Allen and Glen M. Leonard, *The 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1976], 71쪽)

라이더는 교회를 등진 개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스미스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몰몬경을 받았습시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한 군사처럼 끝까지 환란을 견딜 것을 다짐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30쪽)



우리는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 모든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했고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 그의 이름의 철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예언자는 그런 것을 완전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은 적의 군대가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비극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838년 미주리 주의 린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는 그 악명 높은 “근절령”을 발표했습니다.(교회사, 3:175 참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혼즈밀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교회사, 3:182~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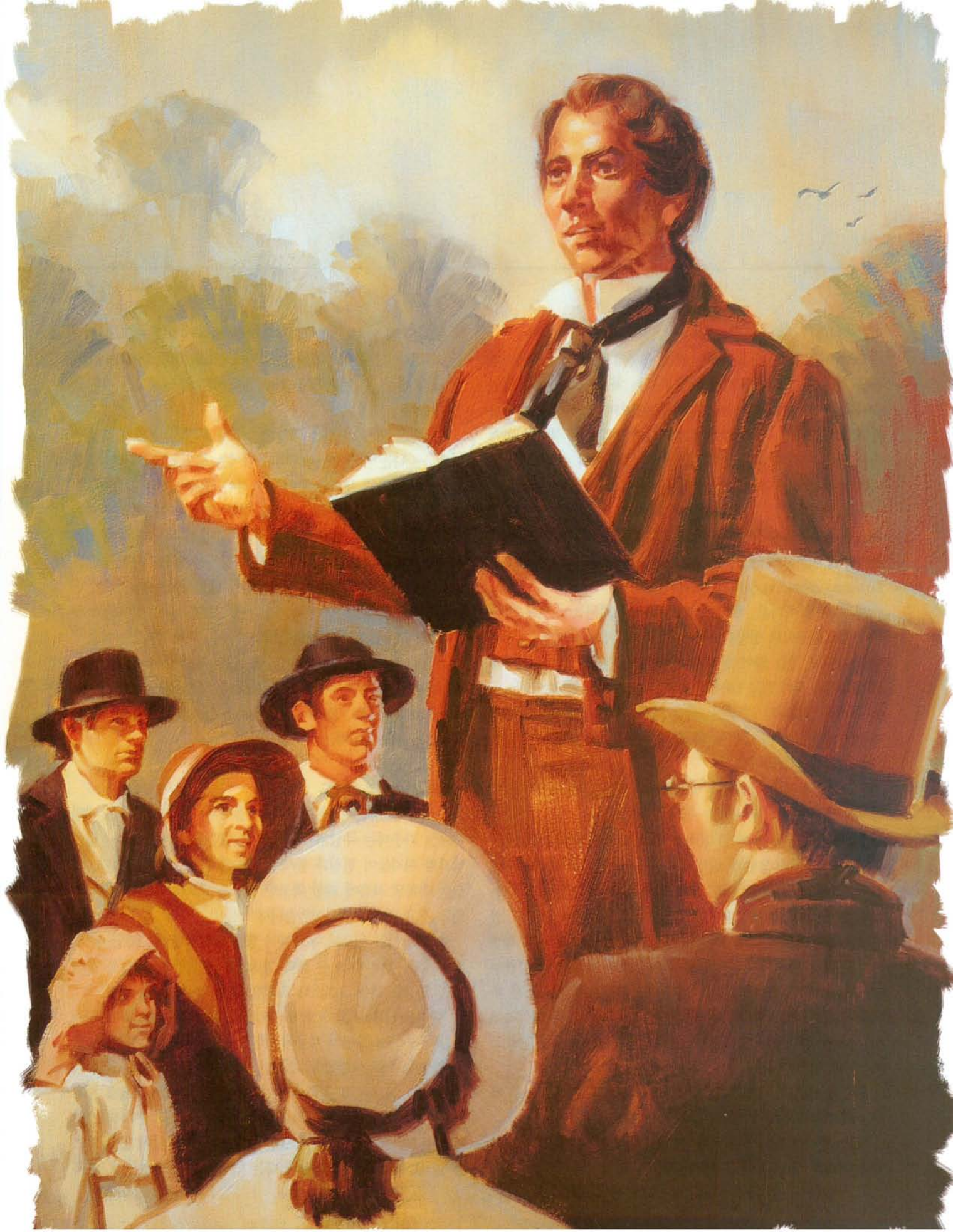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베수비우스 화산이나 에트나 화산 같은 무서운 폭발력으로 악랄한 분노를 뿜어낼지라도 ‘몰몬이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물, 불,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실재합니다. 몰몬이즘은 진리입니다. 몰몬이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우리를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초기에

#### 대업에의 헌신: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진리의 표준을 세우려는 모든 노력에 대한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97명의 선교사들이 1830년대에 성별되었고 처음 10년 동안 20,000명에 가까운 개종자가 회복된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때 미국 내의 대부분의 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었으며,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복음 전파의 길을 열었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두 대륙을 관통했고 세 개의 국가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는 초기의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1837년에 그가 처음 선교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교회 회원이 된지 일년이 채 안된 때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첫번째 복음 전파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 48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몰몬’ 장로의 신분으로 밤을 지낼 숙소를 찾았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여덟 번 만에 한 숙소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저녁 식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식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오하이오 주 메디나 카운티 관청 근처에 사는 가다드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삼촌의 이웃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임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임에 대해 통보했으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중 앞에서 전도자의 입장으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었으나, 영감의 영이 속삭여 줄 것이며 제게 능변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러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저는 저의 삼촌과 숙모와 조카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6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 모든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했고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을(교리와 성약 27: 16~18 참조)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서 18:9)라는 침례 성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1839년에 몇몇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났습니다.

“윌포드 우드럽과 존 테일러가 처음으로 출발했다. 윌포드는 몬트로즈에서 오한과 열병으로 수일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어린 딸인 사라 엠마 또한 심하게 앓고 있었으며, 그의 친구들이 그녀를 좀더 적합한 숙소로 옮겨서 돌보고 있었다. 8월 8일에 그는 마침내 [그의 아내] 포이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시시피 강둑으로 걸어 갔다. 브리감 영은 카누에 그를 태워 노를 저어 강을 건너 주었다. 요셉 스미스가 우체국 옆에서 쉬고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윌포드는 예언자에게 자신이 선교사가 아니라 해부 실험실에 있는 시체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

“우드럽 장로와 테일러 장로가 함께 여행하여 인디애나 주 저먼 타운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다. …

“저먼 타운에 도착했을 무렵 존 테일러는 너무 심하게 아파서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그는] 약 삼 주 동안 몇 차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팠다. 그러나, [1989년] 9월 19일자로 [그의 아내] 리오노라에게 쓴 그의 애정어린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낙천성은 지칠 줄을 몰랐다.

“당신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내게 묻고 싶을 거요. … 나는 내가 아는 것 하나 밖에는 모르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분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요. 그것이 내가 알고 싶은 전부요. 그분이 나를 병상에 눕히시면 만족했고, 그분이 나를 다시 병상에서 일으키시면 감사드렸소. 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시면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 그분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분은 나를 살려두셨고,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오.” (James B. Allen, Ronald K. Esplin and David J. Whittaker, *Men with a Mission, 1837~1841: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in the British Isles* [1992], 67~70쪽)

#### 신앙의 닻 : 헨리 벨라드

그러나 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닻을 내린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사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헌신과 봉사로 비슷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과 교회의 운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이 영국에 도착한 지 10년 후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헨리 벨라드가 충실한 한 회원을 통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1849년] 교회에 가입했을 때 열일곱 살 밖에 되지 않았다. … 1849년의 겨울에, 헨리는 런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인 런던 뉴스로 여행했다. 결혼한 그의 형 조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조지는 그 지역에서 마차 사업을 꽤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물질적으로 헨리에게 제공할 것이 많았다. 조지는 헨리에게 늘 친절했으며, 헨리보다 열두 살이 많았고 그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다음



의 사건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일요일 저녁이었다. 헨리가 막 교회에서 돌아왔다. 헨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했던 조지는 그에게 어디에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교회예요.’ 헨리가 대답했다. 조지도 교회에 참석했었으나 헨리를 그곳에서 보지 못했으므로 질문했다.

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같이 조지는 헨리를 유혹했다. 적어도 유혹하려 했다. 그는 그에게 런던에서 가장 좋은 마차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에게 마부를 주어 그를 태우고 다니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고 했다. 헨리는 좋은

**다**는 남자와 여자들이 헌신과 봉사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과 교회의 운명에 대한 미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교회?’ ‘몰몬 교회요.’ 헨리가 진지하게 말했다. 깜짝 놀라서, 조지는 도대체 왜 ‘험오스러운’ 몰몬 교회에 참석했느냐고 물었다. ‘제가 그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이에요.’ 헨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헨리는 그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그의 간증을 전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조지는 화를 냈다.

“조지는 헨리를 심하게 꾸짖고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헨리는 확고했으나, 그의 형이 어떻게 할지 두려웠다.

“뜻대로 되지 않자 조지는 그의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헨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3일 동안 그를 설득했다. 헨리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했다. 헨리는 그의 확신을 지켰고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성신이 그에게 교회가 참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감히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떠한 설득으로도 헨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자, 조지는 다른 방법을 취

을 입을 입고 부드러운 가죽 장갑을 끼고 실크 모자를 쓴 신사가 될 수 있었다.

“헨리가 조지의 좋은 집에서 그가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호의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헨리는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일할 필요도 없었다. 그 사업의 일부가 그의 것이 될 것이며, 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 어떤 종교도 이 모든 것을 잃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다. 조지는 단지 헨리에게 몰몬주의의 ‘어리석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처럼 헨리는 신앙을 지켰다. 그의 간증과 강한 성품이 승리를 거두었다.

“조지는 맹렬히 노했다. 그는 헨리를 그의 집에서 영원히 쫓아 내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도 친절하고 아낌없이 많은 것을 준, 사랑하는 형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났다. 헨리는 이 생에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Douglas



O. Crookston, Editor, *Henry Ballard: The Story of a Courageous Pioneer, 1832~1908* [1994], 4~6쪽)

삼 년 후, 물질적으로는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 헨리 벨라드는 리버풀에서 뉴올리언즈까지 63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윈터쿼터스까지 가서는 거기서부터 유타까지 걸었습니다. 그는 여비를 충당하느라 유타까지 양떼를 몰았습니다. 후에 헨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섰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0월에 내가 양떼를 작은 산 아래로 몰고 에미그레이션 캐년 입구를 통과하였을 때, 나는 처음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을 보았다.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기뻐던 반면,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볼까 봐 두려웠다.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은 내 몸을 가려 주지 못했고 몸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했던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수풀 뒤에 숨어 있었다. 어두워진 뒤에 나는 들판을 지나 캐년 입구에 있는, 불빛이 비치고 있는 집으로 가서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다행스럽게도, 한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촛불이 그의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부모님을 찾아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좀 달라고 사정했다. 나는 옷을 얻었고 다음 날 여행을 계속하여 1852년 10월 16일에 드디어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였고, 안전하게 미래에 내가 살 집에 도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느꼈다.”(Henry Ballard, 14~15쪽에서 인용)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헨리의 일대기에는 로간 성전에서 그가 처음으로 받은 대리 엔다우먼트가 그의 형 조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전진: 루시 맥 스미스

예언자 요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언젠가 그녀는 뉴욕에서 커틀랜드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그녀의 기록은 주님의 예언자들과 회복된 복음에 대해 그녀가 가졌던 신앙을 잘 보여 줍니다.

“[버팔로에서] 우리는 콜스빌에서 온 형제님들을 만났다. 그들

은 우리에게 그들이 [얼음으로 뒤덮인 강 때문에] 배가 지날 수 있을 만큼의 물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우리는 하이람과 요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 4월 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육로로 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언자 요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콜스빌의 형제님들에게] 그들이 ‘몰몬’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느냐고 물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다. ‘자매님도 우리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을 속소도 얻을 수 없고 배도 탈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우리가 당신들보다 먼저 커틀랜드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정말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Preston Nibley 편찬 [1958], 199쪽)

그리고 나서 루시 맥 스미스는 배를 태워줄 사람을 찾아 다녔고 마침내 그녀의 일행을 기꺼이 자신의 배에 태워주기로 한 블레이크 선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배에 이르렀을 때, 블레이크 선장은 그 때부터 신호를 하자마자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배에 있으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한 남자를 시켜 얼음의 깊이를 측정하게 했고, 그는 돌아와서 얼







음의 두께가 6미터나 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우리가 적어도 2 주 이상 항구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거라고 말했다.”(*Church History*, 202쪽)

루시 맥 스미스와 함께 배로 여행한 성도들 대부분이 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댔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듣고 보면서, 예언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 손으로 그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길이 열리도록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음이 깨지게 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모두가 얼음이 깨져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것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치 번개 같은 소음이 들렸다. 선장이 ‘모두 제 위치로’ 라고 외쳤다. 그 배가 간신히 나갈 수 있을 만큼 얼음이 갈라졌다. ...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구경꾼들의 외침과 소란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 우리가 간신히 갈라진 얼음 사이를 지나자마자 얼음은 다시 합쳐졌고, 콜스빌의 형제들은 버팔로에 남아있었으며, 우리를 따라올 수 없었다.

“우리가 항구를 떠나자, 구경꾼 중에 한 명이 외쳤다. ‘저기 ‘몰몬’들이 간다! 저 배는 그 전보다 23 센티미터나 더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분명히 가라앉고 말거야 ... 모두 죽을 거라구’ 사실상 그들은 그것을 확신했고, 곧장 사무실로 가서 우리가 물속으로 침몰했다는 기사를 냈다. 따라서 우리가 페어포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신문에서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읽었다.

“버팔로의 부두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후, 우리는 우리의 일행을 다시 불러 모아 기도 모임을 가졌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History of Joseph Smith*, 203~205쪽)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상에  
유일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치른 대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 미래의 안전: 신앙의 유산

제가 왜 역사 책에서 초기의 교회 회원들의 흔들리지 않는 간증의 몇 가지 예를 뽑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상에 유일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치른 대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평생 동안 기꺼운 마음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일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강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증과 봉사가 교회의 창시자들의 그것에 필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안전하고 튼튼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때 항상 신실하고 꾸준히 청지기 직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를 수가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5쪽)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대로 살아야 하며,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실한 남자와 여자들이 늘 있도록,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

# 늘 실수를 한다고요?

당황스러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 대업과 왕국

**중**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그분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분이 보내신 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나아오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12:44~50; 13:20 참조)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지상에 교회,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국에서 주고 받는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은 교화되고 온전케 됩니다. **☞** “이것은 하나님의 대업이며 왕국입니다.” 하고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은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일에 회복된 그분의 사업으로서, ... 이 복음과 같은 것은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업과 같은 대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의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재산을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에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이번 호 8

쪽 참조) **☞** 다음의 이야기들이 보여주듯이, 커다란 기쁨은 왕국에 들어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충실하게 왕을 섬기는 이들에게 옵니다.

## 생명수에 목말랐습니다

빅토르 마누엘 카브레라

어렸을 때, 나는 성경 읽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숭배하던 산트시모라고 불리는 금속 물체에 대해 어머니와 심한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도 그것을 숭배하기를 바라

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도대체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알기를 바라면서 더 나은 선택을 갈구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인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애의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다시 똑같은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한번은 사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권능을 받은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돌아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젊은이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타세요! 나는 몬테레이로 갑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의 영혼은 알 수 없는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목말랐으나 마실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94년 4월 나는 멕시코 몬테레이 시에서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빗물은 산자락을 타고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빗 속을 운전한 후에, 나는 몬테레이에서 8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밤 9시가 되었으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 젊은 남자가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타세요! 몬테레이로 갑니다.”

그 중에 피부가 희고 키가 큰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라고 하고 그들에게 주소를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아내를 깨운 뒤 그 두 젊은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군.”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인인데 둘 다 이름이 장로야.”

“장로는 선교사란 뜻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아내가 대답했

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요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내 마음속에 경이감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으며,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2주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4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 딸은 학교에서 종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일성도 교회에 갔을 때, 그 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애 역시 침례 받았습니다.

1995년 12월에 우리는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조화와 화평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물몬경을 사랑하며, 그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

빅토르 마누엘 카브레라는 멕시코 몬테레이 로마 스테이크 미라도 와드의 회원이다.

##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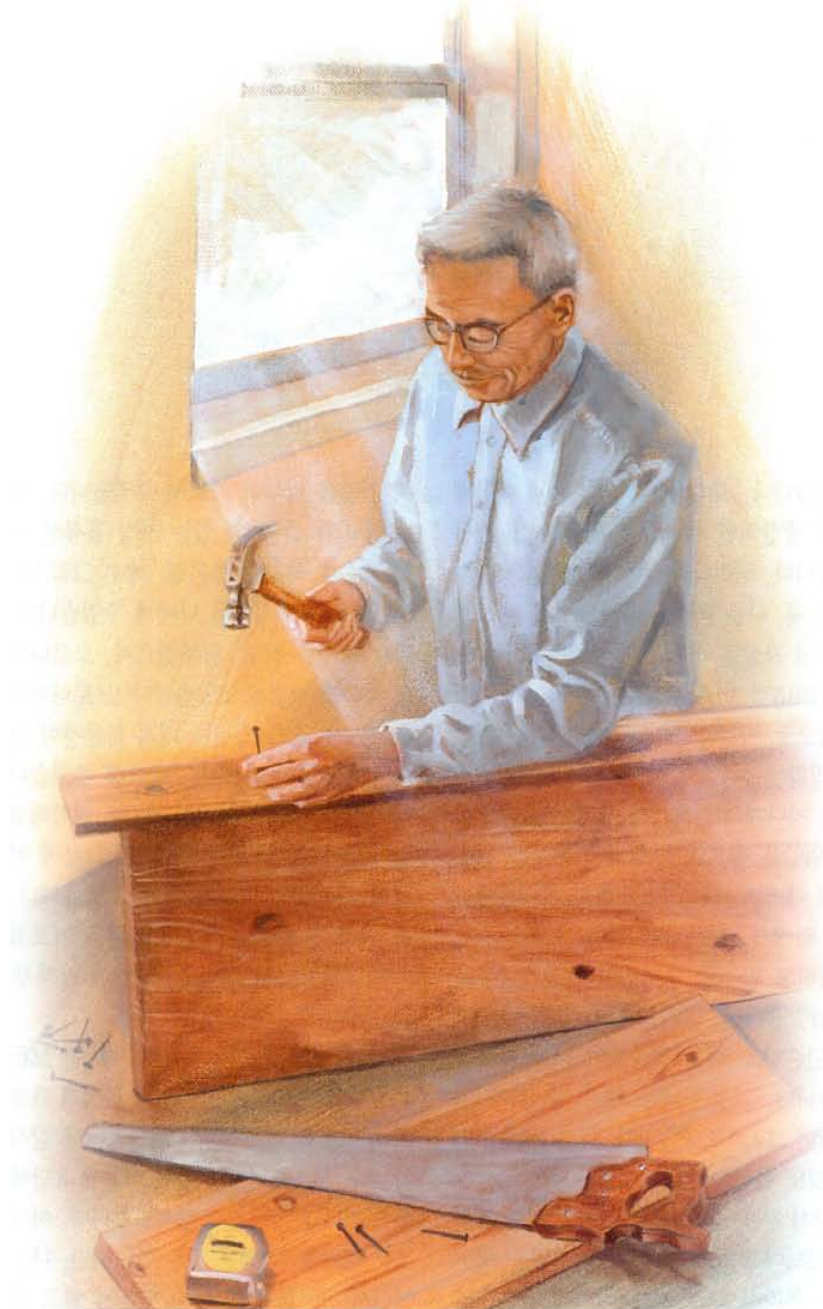
후암 시후아

나는 1974년 타이완 시린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70세이고 옥의 침례탕의 물은 얼음같이 차가웠지만, 나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지부장님은 내게 신권을 성임하고 회원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지부에는 100명 가량의 회원이 있었으나, 약 20명 정도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달 회원들을 방문했으며 참석 인원은 8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참석수가 늘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청청가의 작은 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은 참석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산 북로에 있는 큰 건물로 옮겼습니다. 이전 건물보다 크기는 했지만, 의자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교회의 절차를 통해서 물자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회원이 100개의 의자를 사서 기증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아노도 한 대 사서 낡은 오르간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나는 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여러 날 동안 나는 그 나무로 연단을 만들 수 있는 목수를 찾아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토요일, 나는 혼자서 그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부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후양 시후아는 타이완 타이페이 동 스테이크 페이토우 와드의 회원이다.

## 나의 눈물이 멈추었어요

엘리ানা 마리벨 고르돈 아그레

나는 비록 어렸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며 예수님의 교회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소망은 더욱 강해졌으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곧 에콰도르 리오밤바에 있는 기숙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수녀원에서 수녀원 원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으며, 그녀는 결국 나에게 수녀가 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첫번째 서원을 받아들였고 수련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나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

그 나무로 연단을 만들 수 있는 목수를 찾아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토요일, 나는 혼자서 그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날라 본 적이 없었으며, 더욱이 하루 만에 연단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연단은 다음날 교회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놀랐지만, 내가 놀란 만큼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래, 나는 어떤 방법으

로든 봉사하지 않고 보낸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은 기쁨과 성취와 영적인 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몸은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튼튼하고 건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타이완 타이페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해, 특히 몰몬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몰몬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며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

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기도해 주는 중재 기도에 대해 배웠지만 그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좀더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내게 시키시는 대로 그들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 공허감이 너무 커서 나는 수녀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녀원의 주교가 방문했을 때, 나는 수녀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그 결정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았지만 내 결정이 옳다는 느낌만 더욱 강하게 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일년 뒤에 있게 될 정식 서원을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떠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주교의 승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승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나의 결정을 말하자 그는 나에게 서면으로 퇴원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 편지는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요청서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가 내 서원의 해지를 승인했을 때, 나는 다른 수녀들에게 그 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한 훌륭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소한, 나는 평화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욕과 거부를

당했습니다. 내가 수녀원을 떠난 이유에 관한 중상적인 추측들이 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좌절감과 무가치한 느낌으로 가득한 채, 나는 혼란에 빠졌고 가장 비참한 행동인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5년 11월 21일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교회 건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어떤 위안을 찾으려는 생각에 눈물을 감추려고 애쓰며, 나는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나는 계시판을 보았습니다. 다정하고 따스한 구세주의 사진을 본 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적혀 있던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멈춘 것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한 친절한 여성이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갑자기 내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는 그녀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우리와 동석했으며, 나는 그들에게 나의 슬픔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더 배우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고 친절한 이 부부 선교사들과 10일 동안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전혀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았으며, 단

지 간증을 나누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공부했으며, 모로나이 의 약속을 시험해 보았습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성신은 내게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신비하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이며 그분께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 선교사들이 내게 토론을 가르쳤으며, 나는 1995년 12월 3일에 침례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복음의 빛을 가져다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관심과 가정의 따스함을 나누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모든 해답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디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이 참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하면 찾을 것이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신의 능력으로 ... 알려질 것이요"(니파이일서 10:19)

*엘리야나 마리벨 고르돈 아키레는 에콰도르 키토에 있는 라 오펠리아 스테이크 라 오펠리아 와드의 회원이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한 여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는 그녀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enid a Cristo

Noche de  
lunes a las

# 리아호나

## 2001년 8월호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2쪽: 주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 다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 관장이 인용한 다음 질문을 한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시편 24:3~4 참조)

■ “영을 양육함”, 10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복음을 오직 학습과 이성이라는 지적 방법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적 접근 방법이 부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앙과 헌신의 닳을 내리고”, 30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교회를 떠난다면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으며, 대신 솔트레이크까지의 힘든 여행을 택했다. 값진 물건은 고사하고 입을 옷도 없이 그 곳에 도착했지만 그는 자신의 간증에 진실했다.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겠는가?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희생하지 못할 것이 있는가?

■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친 10쪽: 너무 어린 어린이들이나,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개종자들은 예언자를 한 명 이상 알고 있기 힘들다.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 대관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와 그가 정말로 주님이 선택하신 예언자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가르침 .....	10
가정 복음 교육 .....	5
가정의 밤 .....	25, 48
가족 관계 .....	2, 친4
간증 .....	친10
개종 .....	6, 20, 42
경전 공부 .....	26, 29
교회 역사 .....	30
멜기세덱 신권 .....	지역 소식
모범 .....	30, 친14
물문경 .....	20, 26
방문 교육 .....	25
봉사 .....	42, 친4
부모의 역할 .....	10
사도들 .....	친2
선교 사업 .....	42
성신 .....	10
성전과 성전 사업 .....	2, 6
신앙 .....	10, 30
신약 성서 이야기 .....	친6, 친9
아론 신권 .....	지역 소식
안전 .....	친2
역경 .....	41, 42
예언자 .....	8, 29, 친2, 친10
용기 .....	친14
용서 .....	친9
일 .....	친4
재능 .....	친13
정결 .....	2
준비 .....	22
축복사의 축복 .....	22

### 청소년 기사 모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한 청소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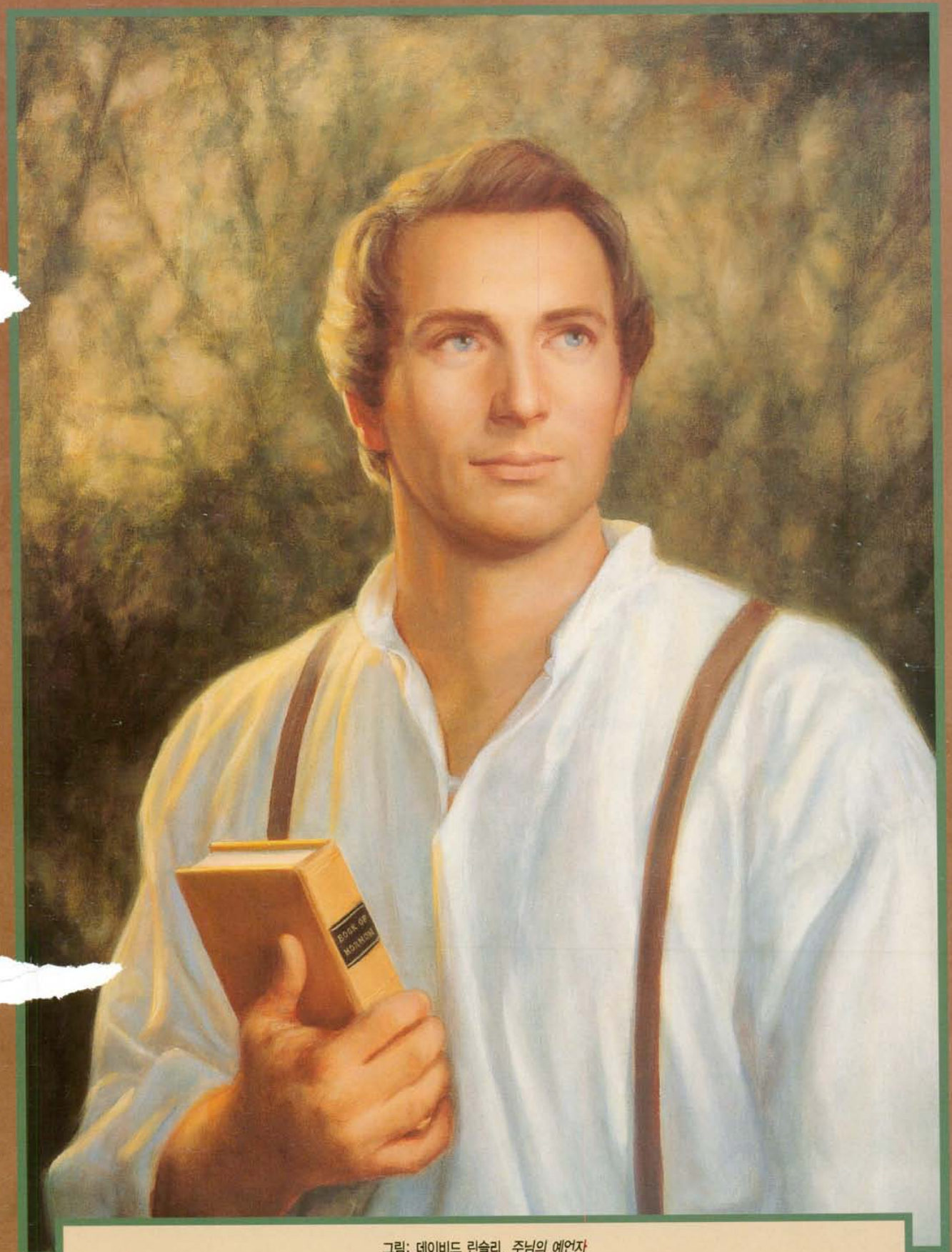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주님의 예언자

“저는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리와 성약 17:6)



**요** 셉 스미스(앞표지)와 그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위)를 포함한 초기 교회 회원들은 신앙과 헌신으로 닳을 내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때, 항상 신실하고 꾸준히 청지기 직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앙과 헌신의 닳을 내리고”, 30쪽 참조.